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85-122  
<https://doi.org/10.29212/mh.2026..140.8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기획 3

## 김일성은 왜 인천상륙작전 저지에 실패했는가?

- 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홍종석 | 국방정보본부

- 목 차
1. 머리말
  2. 6·25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 최고사령부 창설
  3.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주도적인' 전쟁 지휘
  4. 맺음말

**초 록** 본 논문은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킨 이후 최고사령부를 창설하고 본인이 최고사령관이 되는 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가 북한군의 인천상륙작전 저지 실패 및 낙동강 축선에서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는 전쟁 흐름과의 상관관계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이 논문은 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에 대한 위상, 역할 등 구조적인 분석 위주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제 6·25전쟁 초기 인천상륙작전 전·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 통제 체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면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시켰다.

김일성은 6·25전쟁 이전에 구축된 집단 지도체계인 평시 군사지도·지휘체계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6·25전쟁 발발 다음 날 전시 지휘체계의 필요성을 깨닫고 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또한 집단 지도체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소련군사지원단의 조언에 힘입어 최고사령부를 창설하고 김일성이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이후 김일성은 초법적인 지휘통솔권을 부여받아 권력이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전쟁을 지휘했으나 전략·전술적인 오판을 저지르며 인천상륙작전 저지 실패와 낙동강 축선에서의 작전한계점 도달로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패퇴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군 통제 체계로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제어: 6·25전쟁, 인천상륙작전, 군사지도·지휘체계, 최고사령관, 단일 지도체계

## 1. 머리말

김일성은 기존 북한군 통제 체계의 변경 없이 6·25전쟁을 일으켰지만, 전시 군사지도·지휘체계<sup>1)</sup>로의 변화 필요성에 따라 최고사령부를 창설하고 본인이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그러나 최고사령관에 오른 김일성은 초기 승세를 계속 이어 나가지 못하고 인천상륙작전 저지 실패 및 38도선 이북으로 패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6·25전쟁 초기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로 인하여 김일성이 전략·전술적 오판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후 군 통제 체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일성은 6·25전쟁 발발 이후 미군 개입에 따른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련군사고문단의 조언을 받아 기존 평시 북한군 통제 체계를 전시 군사지도·지휘체제로 바꾸면서 최고사령부가 창설되고 본인이 최고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휘했다. 이러한 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를 통해 기존의 집단 지도체계 대신 단일 지도체계로 작동하는 북한군 통제 체계가 6·25전쟁 초기 인천상륙작전 전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 북한의 최고사령부, 총정치국 등과 같은 군사 기구(기관)들을 종횡으로 연결하고 있는 지휘체계에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군에 대한 영도적 통제·관리를 설명하기 위한 '지도'를 포함하는 군사 기구들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상호 관계를 망라한 군사체제의 일부이다.;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0-35쪽.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김일성은 이러한 군사적 제도 변화로 권한이 더욱 강화된 이후 소련과 중국이 조언한 대로 상륙작전을 대비하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낙동강 축선 돌파에 전념하며 조국 해방에만 집중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군이 7월~9월 공세와 인천상륙작전 저지에 실패하고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면서 38도선 이북으로 패퇴한 과정에서 무질서·무규율적인 행동을 보임에 따라 기존의 군사지도·지휘체계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일성이 새로운 군 통제 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6·25전쟁 발발 직후 군사적 제도 변화가 지니는 의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이후 최고사령관이 된 김일성의 ‘주도적인’ 전쟁 지휘가 북한군의 7~9월 공세, 인천상륙작전 저지, 그리고 낙동강 축선에서 공격하는 북한군에게 미친 영향을 전쟁의 흐름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6·25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 최고사령부 창설

### 가. 북한군의 남침과 미군의 개입

북한군의 6·25전쟁 계획은 남한을 ‘속전속결’ 점령하라는 스탈린(Joseph Stalin)의 지침에 의거 수립되었지만, 실제 실행 간에는 큰 괴리가 발생했다. 이때 미국은 소련에 의한 공산화 확산 우려에 따라 신속히 미군 참전을 결정함으로써 김일성과 스탈린의 의도와 다르게 전쟁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북한군의 남침 계획과 시행 간 차이점은 무엇이며 미국의 참전 결정과 지상군의 투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탈린은 6·25전쟁 발발 전 김일성에게 신속히 국군을 격멸하고 남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미군이 개입하려 해도 그럴만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sup>2)</sup> 그러면서 스탈린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두려워한 나머지 남침계획에 자신이 개입했음을 철저히 은폐하려는 의도를 포함했다.<sup>3)</sup>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된 작전개념은 기습을 이용하여 38도선 전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들은 ‘주타격방향’을 서울로 설정하고, 서울을 제1, 제3, 제4사단과 제105땅크여단이 2일 이내에 점령하고, ‘보조타격방향’을 담당하는 조공부대인 제2, 제12사단과 제603모터찌클연대는 춘천을 6월 25일 정오에, 홍천을 6월 26일까지 신속하게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천, 광주, 수원으로 쇄도하여 수원에서 개전 5일 이내에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해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이었다. 그 후로는 신속히 남해안의 주요 항구 도시를 향해 진격하며 소탕 작전을 벌여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었다.<sup>4)</sup>

특히, 김일성과 박헌영은 ‘미군 불개입’을 확신했고, 이승만 정권 붕괴를 위한 서울점령과 전국적인 빨치산 봉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북한군의 작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2)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14-115쪽.

3)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초판 3쇄(서울: 중심, 2004), 127쪽.

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편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권(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187-188쪽; S. S. Lototskii, / N. L. Volkovskii, eds., *Voina v Koree 1950-1953*(한국전쟁 1950-1953) (Sankt-Peterburg: Poligon, 2000), 58-59쪽;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128쪽.

도, 남한 후방지역에 게릴라를 침투시켜 전국적 봉기를 일으키는 데 더 노력을 집중했다.<sup>5)</sup> 그들은 6·25전쟁을 준비하면서 1950년 4월 모스크바 회담 시 스탈린 앞에서도 미군의 참전은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었다.<sup>6)</sup>

북한군은 1950년 6월 25일 4시에 전면적으로 남침 공격을 시작했고 전쟁 개시 이틀 동안의 성과는 평양에 위치한 북한군 총사령부 지휘소를 매우 고무시켰다. 김일성도 초전 승리에 만족하여 최초 계획과 달리 서울 확보 작전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북한군의 최초 작전계획은 상당 부분 변경되었다.

이때 김일성은 서울점령 작전에서 중앙청, 서대문 형무소, 마포 형무소, 방송국 점령에 주안점을 두라고 강조했다.<sup>7)</sup> 남로당 출신들이 수감되어 있던 서대문 형무소를 개방하여 그들을 석방함으로써 북한 정권 지지자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노동당 지지와 이승만 정권 타도 운동에 앞장서기를 기대했다. 방송국을 조기에 점령함으로써 북한 정권과 ‘통일전쟁’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난 선전을 강화하고자 했다.<sup>8)</sup>

그러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38도선 이북에 공중폭격을 시작하자 잠시 승리에 도취해 있던 김일성은 다시 공격을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작전은 소련군이 사단별로 작성해 준 전투명령을 시행하면 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북한군이 직접 전투명령을 작성해 하달해야

5) 김광수, 앞의 책, 2008, p. 133쪽.

6) 와다 하루키 저, 남상구·조운수 역, 『한국전쟁 전사』, 3쇄(경기 파주: 청아출판사, 2024), 156-161쪽.

7) 김일성,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972, 124, 156-160쪽.

8) 김일성, “서울방송국을 장악하고 운영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에게 준 지시 1950년 6월 27일,” 『김일성 전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52-54쪽.

했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전쟁 발발 전에 소련군이 6·25전쟁에 개입했다는 것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소련군사고문단에게 38도선 아래로 내려가지 말 것을 엄명함으로써, 소련군사고문단은 평양의 총참모부, 철원의 보조지휘소(6월 26일 이후), 38도선 이북 연천의 제1보조지휘소, 화천의 제2보조지휘소까지만 북한군 지휘관들과 함께했다.<sup>9)</sup>

북한군에 의한 남침 소식은 국무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이 미국시간 6월 24일 오후 10시에 서울에 있는 무쵸(John J. Muccio) 대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도 보고 되었다.<sup>10)</sup>

이후 애치슨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저녁(미국 현지 시각)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결의안<sup>11)</sup>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이 최신 상황과 모든 권고사항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국무부에서는 세 가지 권고사항을 보고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이행하도록 승인했다.

1. 맥아더 장군에게 한국에 대한 기계화된 군사 지원 프로그램 이외에 추가적인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 미 공군은 북한의 지상 또는 공중 공격으로부터 미국 시민들

9) 코로트코프, 어건주 옮김, 『스탈린과 김일성』, 제2권(서울: 동아일보사, 1993), 38-39, 54쪽.

10)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Norton, 1969), 402쪽.

11)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적대행위 중단, 북한군 38도선 이북 철수’를 핵심으로 하는 결의 제82호를 공표했다. 유엔 결의 제82호는 6·25전쟁과 관련한 최초의 유엔 결의이며 향후 이어지는 결의들의 시발점이자 근거 역할을 했다. 유엔은 이 결의의 표제를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의 규탄(Compliant of aggression upon the Republic of Korea)”으로 정했다. “Resolution 82,”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473rd meeting, June 25, 1950, 접속일 2026년 6월 22일.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12025?ln=en&v=pdf>.

의 후송을 방해받지 않도록 김포공항을 방호해야 한다.

3. 제7함대를 필리핀 북쪽에서 포모사(대만)해협으로 출동하여 중국의 대만 공격 또는 대만의 중국 공격 상황을 막아야 한다.<sup>12)</sup>

6월 26일 월요일 트루먼 대통령은 2차 블레어하우스 회의를 개최했다.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는 미군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모아졌고 대통령이 제안 사항을 요청하자, 애치슨은 권고사항을 보고했다.

이 권고안은 트루먼 대통령이 곧 발표할 성명서로 작성되었으며 핵심 내용은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파병이었고 미 국무부에서 이 성명서의 초안을 작성했다. 6월 26일에 국가 전쟁지휘부가 모인 긴급회의에서 트루먼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회람 및 검토했다.<sup>13)</sup>

6월 27일 아침, 트루먼 대통령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회 리더들의 견해를 요구하자, 군사위원회가 맥아더 장군의 해·공군력 전개에 대한 법안 초안 연장을 의결했고, 국가방위군 소집을 의결했으며, 군비 확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유엔 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과 대통령의 제안을 승인했다.<sup>14)</sup>

6월 29일 목요일 맥아더 장군이 한국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보낸 존 처치(John Church) 준장은 미군의 투입 없이는 이전 상태로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목요일 오전에 서울의 한강 남쪽이 북한군의 공격에 무너졌다.<sup>15)</sup>

12) Acheson, 앞의 책, 1969, 406쪽.

13)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 (Jessup)," 795.00/6-2650, June 26, 1950 접속일 2026년 6월 22일.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50v07/d105>.

14) Harry Truman, *Memoirs by Harry S. Truman: 1946-52, Years of Trial and Hope*.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vol. 2, 1956), 338쪽.

15) Acheson, 앞의 책, 1969, 411쪽.

6월 30일 맥아더 장군이 콜린스(Joseph Lawton Collins) 육군참모총장과 통화에서 남한 전선을 시찰하고 온 결과 미 지상군 투입만이 북한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그는 즉시 1개 연대전투단의 투입 승인과 가능한 신속히 2개 사단을 증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내용은 바로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트루먼 대통령은 1개 연대전투단의 투입을 승인했으며, 이후 회의를 거쳐 2개 사단 규모를 맥아더의 통제하에 운용하도록 승인했다.<sup>16)</sup>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으로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었고, 맥아더 장군을 지원하기 위한 트루먼 행정부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맥아더 장군이 북한군을 격멸하기 위해 구상하는 상륙작전의 준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다. 우선 최초 상륙작전 계획인 ‘작전계획 블루하츠(Operation Bluehearts)’<sup>17)</sup>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에 주둔 중인 미 지상군 투입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미국의 트루먼 행정부를 위주로 하는 적극적인 개입과 유엔 결의<sup>18)</sup>에 따른 대응으로 6·25전쟁 발발 이후 10일 만에 최초의 미 지상군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게 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바뀌게 되었다.

## 나. 최고사령부 창설과 김일성의 최고사령관 임명

김일성은 6·25전쟁 발발 시 완전한 전시 지휘체계를 갖추지 못

16) Truman, 앞의 책, 1956, 342-343쪽; Acheson, 앞의 책, 1969, 412쪽.

17) ‘작전계획 블루하츠(Operation Bluehearts)’는 맥아더 장군이 최초로 수립한 인천상륙작전 계획이다. 당시 북한군의 진격 속도가 빨라 작전은 취소되었고 이후 새로운 계획인 ‘작전계획 크로마이트(Operation Chromite)’를 다시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인천상륙작전을 시행했다.

18)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적대행위가 중지되지 않자, 유엔 결의 제83호를 1950년 6월 27일 채택했다. “Resolution 83,”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474rd meeting, June 27, 1950, 접속일 2026년 6월 22일.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12026?ln=en&v=pdf>.

한 채 평시 군사지도·지휘체계로서 지휘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일성도 전쟁 발발 후 군사위원회를 창설한 데 이어 전시 지휘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러한 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 변화의 원인, 배경,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6·25전쟁 발발 다음 날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헌법 49조 2항에 근거한 ‘정령’<sup>19)</sup>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를 통해 내각 수상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화국) 군사위원회’를 신설했다.<sup>20)</sup> 군사위원회는 일체의 주권을 행사할 7인의 군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김일성, 위원에 박헌영(부수상 겸 외무상), 홍명희(부수상), 김책(부수상), 최용건(민족보위상), 박일우(내무상), 정준택(국가계획위원장) 등을 선임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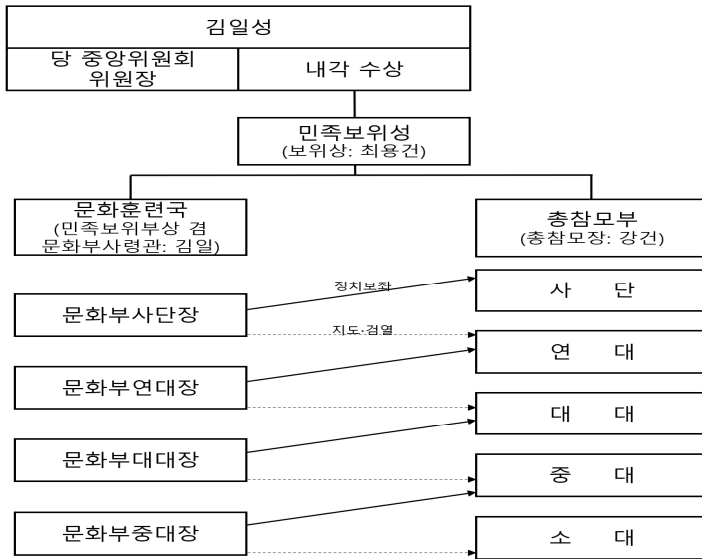
이처럼 북한군은 남침 이후 기존 평시 지휘구조의 큰 변경없이 군사위원회라는 임시·보조기구를 신설하여 전쟁지휘를 수행했다. 개전 이후 북한군에 대한 지휘는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내각 수상인 김일성의 지휘로부터 아래 민족보위상, 총참모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계선을 보인다. 또한 당시 군 내부의 정치사업은 당조직이 아닌 민족보위성 산하의 문화훈련국에 의해 수행되었다.<sup>22)</sup>

19) ‘정령’은 1948년 제정된 북한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휴회 중일 때 최고주권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발령하는 법규 형식으로, 헌법상 최고인민회의 또는 그 상임위원회에 의해서만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회과학원 편,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455쪽.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하 ‘정령’)-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萩原遼, 『北朝鮮の極秘文書』, 11-12쪽.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정령),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자료집, 제2집』(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2쪽.

22)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76.



\* 출처: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76쪽; 고명균, 「박헌영의 북한군 초대 총 정치국장 임명 배경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2014), 207쪽; 홍종석, “6·25전쟁기 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와 당적 통제의 제도화,” 43쪽. 등을 활용 재작성.

〈그림 1〉 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6·25전쟁 발발 시)

북한군 작전에 대해서는 현지 소련군사고문단이 직접 조언했고, 소련군 총참모부가 면밀하게 원격 통제를 하고 있었다. 이들에 의해 6·25전쟁 상황은 모스크바의 소련군 총참모부에 하루 한두 번의 보고가 이루어졌다.<sup>23)</sup>

이 같은 구조로 볼 때 북한군에 대한 실질적인 작전지도는 소련과 북한이 공동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소 간의 실제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1차 사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초 소련군사고문단이 전쟁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했지만, 38도

23) 코로트코프, 앞의 책, 1993, 38-39, 54쪽.

선을 최초 돌파하였던 개전 당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사단급 이하 부대의 작전은 북한군 지휘관들이 소련군사고문단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부대를 지휘했다.<sup>24)</sup> 이러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소련측은 스탈린에게 전보로 보고하고, 지침 수령 후 김일성에게 지시했지만, 38도선 이남으로 내려가지 못한 상황에서 김일성이 주도적이고 독단적인 전쟁 지휘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 또한 북한에서 전 국민 의무병역제를 시행할 계획에 관하여 슈티코프(Terenty Shtykov)에게 의견을 물었다.<sup>25)</sup> 북한은 미국의 참전이 확실시되자 때늦게 1950년 7월 1일 ‘전시동원령’을 선포하면서 전쟁이 총력전 양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북한군이 미군 개입은 없다는 가정에서 전쟁을 개시했지만, 미군 참전이 현실로 다가오자, 동원령을 선포하여 병력 보충을 위한 노력 등 본격적인 대비를 하게 된 것이었다.

6·25전쟁 남침 다음 날 창설된 군사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에 소속되어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하는 국가 및 군사의 최고기관”으로서 공화국 내각 산하의 각 성·국 등 중앙행정기관과 도·시급 지방 군정기관을 포괄적으로 지휘·통합하는 구조를 갖춘, 북한의 최고 전쟁수행기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련군사고문단과 김일성은 전쟁을 승리한다는 초기의 낙관적인 희망을 변경시켜,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동안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북한군의 전쟁지휘체

24) 김광수, 앞의 책, 2008, 151쪽.

25)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내는 전보: 미국 간섭 후 조선의 정치정서 1950년 7월 1일,”(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46), 선즈화 편, 김동길·이강범 역, 『기밀문건 속 한국전쟁』(서울: 페에에이월드, 2024), 207쪽.

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sup>26)</sup> 특히, 군사위원회는 국가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동원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었지만 군 지휘권을 보유하지 못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sup>27)</sup>

전쟁 초기 북한지도부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으나 미군 항공기들이 북한의 주요 경제 및 군사 목표들을 공격하면서 북한군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50년 7월 3일 슈티코프 소련 대사가 김일성과 박헌영을 만났다. 이때 김일성은 북한군이 미군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량의 무기 공급 요청과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작전통제에 대한 소련의 조언을 요청했다.<sup>28)</sup>

슈티코프 대사와 소련군사고문단장 바실리에프(Nikolai Alekseyevich Vasiliev) 장군은 이를 모두 듣고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 “1. 최고사령관, 군사위원회 위원, 그리고 참모장으로 구성되는 군사위원회(military council)에 의해 지휘되는 2개의 집단군을 창설할 것. 각 집단군 휘하에 4~6개의 편제를 둘 것.
2. 전선사령관, 참모장 그리고 전선군사위원회 위원에 의해 지휘되는 전선사령부를 창설할 것.
3. 민족보위성은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뒤에 남아있어야 함. 민족보위성은 예비부대 및 신편 부대의 훈련을 담당, 공화국 북부 지역에 대한 상륙 저지 작전 관장. 아울러 식량, 연료, 수송, 탄약 등 작전부대의 전투 수행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할 책임질 것.

26) 고재홍,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전쟁지도체계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8권 2호(2005), 10-11쪽.

27) 이수원, 『북한의 군사국가 지도기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서울: 경진출판, 2022), 51쪽.

28) 예프케니 바자노프, 나팔리아 바자노바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서울: 도서출판 열림, 1998), 77-80쪽.

4. 군대의 최고사령관으로 김일성을 임명할 것.”<sup>29)</sup>

김일성은 사령부 구성 문제에 관해서도 슈티코프에게 의견을 구하자, 슈티코프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 “1. 좌측 방면 집단군은 포병부대 책임자이자 민족보위성 부상인 무정이, 우측 방면 집단군은 부총참모장인 김웅이 지휘할 것.
2. 전선사령부 사령관에는 내각 부수상 겸 산업부장인 김책을 임명할 것.
3. 총참모장 강건을 전선사령부 참모장에 임명하고, 민족보위성은 유임시켜 새로이 편성된 부대들 및 상륙 저지 작전 업무를 관리하고 군수품을 보급하는 일을 담당하게 할 것.”<sup>30)</sup>

북한지도부는 이 같은 소련의 조언을 곧바로 수용해 다음 날인 7월 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해 전시 상태에서 ‘전반적 무력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휘하는 기구’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를 조직했고, 김일성을 최고사령관에 임명했다.<sup>31)</sup> 그러나 그 이후 오늘날까지 최고사령부나 최고사령관 관련 공개된 명문 규정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sup>32)</sup>

최고사령부 창설과 최고사령관 임명은 형식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정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가 모든 최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기구로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 당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는 북한의 당·정·군 관련 주요 정책결정권과 고위

29) 바자노프, 바자노바, 앞의 책, 1998, 80-81쪽.

30) 바자노프, 바자노바, 앞의 책, 1998, 81쪽.

31)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1: 사회주의 정치방식의 확립』(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87-189쪽.

32) 고재홍, 앞의 책, 2005, 7-8쪽.

간부 임명권을 보유한 기관으로, 최고 사령관직 신설 역시 당 주도의 결정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다.<sup>33)</sup>

그러므로 이러한 사령부 구성은 김일성과 슈티코프가 사전에 조율을 통해 인사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나 김일성이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해 놓은 상황을 소련군사고문단장 슈티코프의 입을 빌려 직책 수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북한군의 주요 직책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는 것도 당시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된 북한지도부의 실상을 고려함과 동시에 소련측에는 본인들의 조언에 힘입어 함께 결정했다는 명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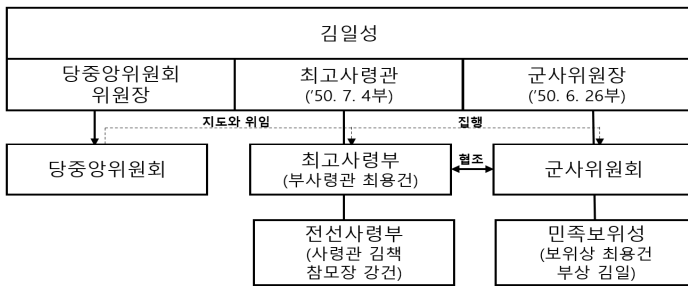
김일성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동안 집단 지도체계에 의해 작전을 지휘하고 소련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최고사령관에 임명됨으로써 전쟁 지휘에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38도선 이남에서의 작전은 소련군사고문단이 직접적인 현장 관여가 힘든 상황에 접어들면서 김일성의 지휘 권한은 더욱 증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은 6·25전쟁 발발 직후 전당, 전군, 전민을 통제할 수 있는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곧이어 새로운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를 통해 무력 운용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최고사령관이 갖도록 했다. 김일성은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평시 민족보위상 지휘하에 있던 참모 기구와 각 군부대를 직접 지휘·감독하게 됨은 물론 사회안전성 관하의 준 군사부대까지 모든

33) 국사편찬위원회 편, “간부배치 및 이동에 대한 규정: 로동당 중앙본부(1949),” 『북한관계사료집-조선로동당자료 1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2), 555-560쪽.

부대에 대한 군 통수권을 행사했다.

결국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을 포함하여 아래의 〈그림 2〉에서와 같이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군사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함으로써 절대권력을 장악하고 최고사령관 → 전선사령관 → 군단장 → 사단장에 이르는 전시 전쟁지도·지휘체계를 완전하게 갖춘 상태에서 전쟁에 임했다.<sup>34)</sup>



출처: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군사지휘체계』(서울: 경인문화사, 006), 220쪽 재정리;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83쪽; 홍중석, “6·25전쟁기 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와 당적 통제의 제도화,” 50쪽 등을 참조하여 재작성.

〈그림 2〉 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50년 7월 4일 이후)

북한군 최고사령부와 최고사령관이 등장한 배경으로는 먼저, 급변하는 전시 상황 속에서 당중앙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방식으로 는 한계가 있었으며, 신속하고 일원화된 지휘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단일 지도체계’를 갖춘 최고사령관 직책의 임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다. 또한, 남침 이후 약 10일간 군사작전과 군수지원, 전·후방 구분 없이 전쟁을 수행해 온 군사위원회의 기능적 과중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무력에 대한 최고지휘권을 부여한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지휘체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군사위원회가 창설된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34) 김동엽, 앞의 책, 2013, 84쪽.

새로운 군사지도·지휘체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소련군사고문단이 전쟁의 경험을 통한 전시 지휘체계 운용에 관한 지침과 김일성이 집단 지도체계의 틀을 벗어나 단독으로 지휘할 수 있는 단일 지도체계의 부여는 비상시국에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반적인 무력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는 전시 비상기구로서 최고사령관에게 초법적인 지휘통솔권을 부여하고, 이를 유일하게 행사하도록 한 데에 북한군 최고사령관 제도의 창설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35)</sup> 6·25전쟁기 북한군 최고사령관은 다른 북한군 지휘관과는 달리 대내·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했으며 북한의 정규군인 육·해·공군 이외에도 준군사 조직으로 있는 내무성 소속 ‘경비대’와 내무서원, 빨치산, 당원, 민청원 등 북한 내 일체 무력에 대해서도 지휘통솔권을 행사했다.

북한은 6·25전쟁 당시 전쟁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대외·대민), 최고사령관(군사작전·군사행정), 군사위원회(군민관계·군수지원) 3자 간에 역할을 분리한 전쟁 지도체계를 구축했다. 즉, 조선노동당과 군사위원회는 ‘일체 무력의 지휘 및 통솔’을 담당하는 최고사령관을 지원하는 구조로 기능했으며, 이는 곧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로 규정할 수 있다.<sup>36)</sup>

6·25전쟁 초기 이렇게 새로운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전쟁지휘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실제 전쟁 양상이 변화되면서 그에 따른 절대적인 필요성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

35) 고재홍, 앞의 책, 2005, 13-14쪽.

36) 위의 책, 19쪽.

### 3.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주도적인’ 전쟁 지휘

#### 가. 북한군의 공세와 상륙작전 대비

김일성이 작전 속도를 높이며 공세를 재개할 때 소련과 중국이 유엔군의 후방지역 상륙작전에도 대비토록 강조하였지만, 김일성은 더욱 조국 해방에 집중했다. 그러나 미군 참전이 확대되면서 전쟁의 흐름은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최고사령관 김일성의 지시로 수행된 북한군의 공세와 후방지역 상륙작전 대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군이 공세를 재개한 이후 미군의 엄청난 공중폭격에 의해서 큰 피해를 보았지만, 김일성은 서울에서 지체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군의 작전 속도를 높여 남진하도록 지시했다.

북한군 제4사단 선두 부대는 7월 3일에 영등포를 장악했고, 7월 4일 수원에서 후퇴하는 국군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수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땅크여단 제107땅크연대는 7월 5일에 오산 북방 죽미령에서 미군 선발대인 ‘스미스 특임부대(제24사단 제21연대 1대대 일부)’와 조우하여 한나절의 전투 만에 이 부대를 괴멸시켰고 이날 밤까지 평택 전방 서정리에 도달했다.

실제 북한군과 최초로 전투를 치른 미군은 일본에서 미 제24사단 예하의 21연대 1대대장인 스미스(Charles B. Smith) 중령이 지휘하는 1개 증강된 대대급 규모로 북한군을 저지하도록 선발대로 투입된 부대였다. 맥아더 장군의 요청으로 가장 빨리 투입한 최초의 지상군 전투부대였다.<sup>37)</sup>

37) T. R. 페렌바크(T. R. Fehrenbach), *This Kind of War*, 최철영·윤상용 옮김,

7월 14일과 15~16일 금강을 도하한 북한군 제1군집단은 대전으로 후퇴한 미 제24사단을 포위할 계획으로 진격했다. 7월 20일 아침 북한군 제4사단과 제105땅크사단의 T-34/85 전차들은 대전 시가지로 밀고 들어가서 정오경부터 치열한 대전 시가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에 시행된 사단의 철수 과정에서 제24사단장 딘(William F. Dean) 소장은 길을 잘못 들어 결국 포로가 되었다. 소련 자료에 의하면 대전 전투에서 북한군은 미군과 국군 2,000명을 살상하고, 미군의 야포 17문, 전차 6대, 장갑차 4대, 차량 60대를 파괴했다. 또한 각종 구경의 포 70문, 박격포 29문, 장갑차 9대, 전차 8대, 차량 320대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sup>38)</sup>

그리고 북한군은 7월 말까지 북쪽에서는 안동, 상주, 남쪽에서는 합천, 진주 등 낙동강 서안 가까이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동안 북한군의 인적 손실 또한 상당했는데, 미군은 7월 말 기준 북한군의 손실을 31,000명 혹은 37,000명으로 추산했고, 미 제8군이 확보한 포로 진술 및 노획 문서에 의하면 북한군의 실제 손실은 58,000명이었다.<sup>39)</sup>

한편, 김일성은 후방의 모든 해안에 해안 육전대와 경비대를 배치했다. 또한 미 제8군이 남쪽에서 반격해 올라올 것을 대비해 민족보위성에 방어진설국을 신설하고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6개의 예비 방어선 구축 명령을 내렸다. 김일성은 적의 상륙 가능 지역

『이런 전쟁』(서울: 플래닛미디어, 2019), 129-130쪽.

3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편역,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001, 203쪽; TsAVMTs GSh VS RF (Arkhiv-TsAMO-A) Fond 16, Opis 3139, Delo 133 “Zhurnal boevykh v Koree s 28 iiunia 1950 g. po 31 dekvria 1951 g.” (조선전쟁전투일보, 1950년 7월 24일자). 이하에서 이 자료는 “소련군 조선전쟁 전투일보”로 축약해서 인용함; 대전전투의 세부 경과는,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pp. 151-178쪽.

39)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Washington, DC: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61), 263쪽.

으로 판단하는 모든 곳에 부대 배치를 지시했고, 특히 인천-서울 지구에 대한 방어 강화를 지시했다.<sup>40)</sup>

그리고 8월 중순에 이르러 인천 주변 도서들에 대한 소규모 한미 유격부대의 출몰에 대비하고, 동·서해에서 미군 함정의 간헐적인 함포사격이 계속되자, 경기도 방어지역 군사위원회로 하여금이 지역에 대한 방어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sup>41)</sup>

북한군 전선부대들의 8월 공세는 북한이 남한 점령 완료 후 기념식을 하기로 설정한 8월 15일까지 격렬히 진행되었으나 8월 20일경에는 공세 실패가 명백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대사 슈티코프가 8월 25일 김일성에게 몇 개 사단은 후퇴시켜 병력과 무기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김일성은 “(전선사령관) 김책이 지시를 듣지 않아, 사단의 후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sup>42)</sup> 김일성은 낙동강 전선 돌파 이외의 다른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이 속도를 높이도록 독촉해도, 7월 말, 8월 초부터 도착한 유엔군의 추가 지원 병력과 전차를 포함한 물자는 상대적인 전투력 비율에서 북한군을 역전했고, 미 공군이 병참선을 차단하게 되자, 점차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sup>43)</sup>

김일성은 지난 7·8월 공세에서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관한 작전 수행 개념은 바꾸지 않았다. 9월에도 최후 공세를 계획하며 낙동강 축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세를 강화하여 남한

40) 김일성, “공화국남반부해방지역에서 당단체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며 방어선을 구축할데 대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0년 8월 4일),” 『김일성 전집 12』, 198-200쪽.

41) 박명림은 8월 초에 김일성이 모든 해안에 대한 방어대책을 강조하면서도 인천 지역을 미군의 상륙이 가능한 지점으로 생각했다고 기술했다.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서울: 나남출판, 2002), 408쪽.

42) 와다 하루키, 앞의 책, 2024, 251쪽.

43)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편, 『6·25전쟁사 5-낙동강 방어작전』(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8), 69-71쪽.

지역 점령에 집중했다. 그리고 김일성은 개전 초부터 7월 말과 8월 말에 걸쳐 두 차례 후방 상륙작전에 대비했다.<sup>44)</sup> 그는 매번 미군의 후방지역 상륙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안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성은 “지금 적들은 대병력을 동원하여 동서 해안으로부터의 상륙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상륙이 가능한 지점으로는 서해안에 있는 인천, 남포, 초도, 철산, 안주, 다사도와 동해안의 원산, 함흥, 신포의 아홉 군데를 꼽았고,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도에 1개씩의 경비연대 창설을 지시했다.<sup>45)</sup> 또한 8월 30일에는 남한 지역의 해안 방위 강화와 내륙의 치안 유지를 위해 지금까지 편성한 경비대를 도별 단위로 묶어 경비여단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sup>46)</sup> 그러나 김일성은 미군 상륙 가능성에 대비하라는 지시는 하달했지만, 낙동강 전선에서 9월 공세가 시작된 후 그의 관심은 더 이상 후방 방호에 있지 않았다.

마오쩌둥(毛澤東)과 저우언라이(周恩來)는 8월 말에 북경을 방문했던 이상조에게 북한이 후방상륙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상조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자 마오쩌둥은 이상조에게 귀국하면 김일성에게 후방상륙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전하도록 했다. 그러나 9월 초 이상조가 귀국해 마오쩌둥의 의견을 김일성에게 전달했을 때 그는 이 또한 일축했다.<sup>47)</sup>

44) 김일성, “지방방어를 조직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년 7월 29일,” 『김일성 전집 12』, 179-180쪽; 김일성,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 내무성, 민족보위성 책임간부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도내무부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년 8월 29일,” 『김일성 전집 12』, 248-251쪽.

45) 김일성,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 1995, 248-257쪽.

46) 김일성, “조선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일본 반동정부의 범죄행위를 폭로 규탄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년 8월 30일,” 『김일성 전집 12』, 262쪽.

47)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ansas: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9월 공세에 투입한 총병력은 13개 보병사단과, 1개 탱크사단, 2개의 탱크여단이였다. 9월 공세는 8월 공세 당시와는 달리 매우 세밀하게 공격계획을 입안하였고, 작전계획에는 사전 정찰, 공격 1일째, 2일째에 보병연대, 포병대대, 탱크부대, 공병부대 등 각 부대가 시간대별로 취해야 할 행동들이 ‘전투일람표’로 작성되어 구체적으로 지정되었다.<sup>48)</sup> 북한군은 전쟁 경험이 쌓이면서 점점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김일성의 ‘최후 공세’는 여러 가지로 무리한 면이 있었다.

8~9월의 낙동강 축선 공세 실패의 원인으로는 김일성 자신의 전략적 무모성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김일성이 최고사령관이 된 이후 단일 지휘체계에 따라 그의 전쟁 지휘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의 지휘를 받고 싸우는 예하 지휘관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전투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이들의 지휘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없었다는 것이다. 비록 문화훈련국이 북한군 내 문화교양사업 관장뿐만 아니라 군사적 규율 준수와 정치·사상적 상태를 지도 및 감독하는 것이었지만 군사단일제 체제하에서는 해당 부대 지휘관을 방조(지원)하는 역할에 치중했고 그들을 지도하거나 감독하지는 못했었을 수 있다.

또한 김일성이 단독으로 작전통솔권을 가지고 지휘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북한군 지휘부는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소련군사고문단도 전선에 함께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언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비록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1995), 72-73쪽.

48) “제9사단 전투명령: 낙동강도하계획 1950년 8월 26일 박효삼,” NARA RG 242, ATIS Document no. 200501.

남한 공세보다는 상륙작전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조언했지만, 낙동강 축선만 돌파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확신을 굽힐 수는 없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김일성의 판단을 부채질한 데는 8월 28일 자 스탈린의 격려가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 동지는 외국 간섭자들의 투쟁에서 연속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 승리는 때로는 일부 좌절과 심지어 국부적인 패배를 동반하기 마련이니, 이런 전쟁에서 연속승리는 없다. (중략) 김일성 동지는 지금 조선은 고립된 것이 아니며, 현재와 장래에 모두 자신을 원조할 맹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sup>49)</sup>

마오쩌둥은 8월부터 9월 초에 걸쳐 북한 정부의 대표를 만나 여러 방면으로 조언했다. 먼저 제2의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강조하고 예비 병력을 확보해 ‘제물포(인천)–서울 간’, ‘진남포–평양 간’ 등 상륙 예상 지점의 방어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병력을 재편해 새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신속히 철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부하에게 책임을 미루며 소련과 중국의 조언도 무시한 채 영토해방에만 급급했다.<sup>50)</sup>

김일성은 미군의 후방상륙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로는 강조했으나 9월 초에도 작전의 우선순위를 낙동강 전선 돌파에 두었다. 인천 방어부대에 상륙 가능성이 있다는 지시가 내려졌으나, 방어 강화 명령에도 불구하고 병력 증강이나 충분한 물자 지원은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

한편, 인천과 월미도 일대는 수일간 미 공군과 해군의 대규모 폭격과 포격에 노출되었다. 9월 15일 당일 아침, 인천방어여단 문

49) 선즈화, 앞의 책, 2024, 259-260쪽.

50) 와다 하루키, 앞의 책, 2024, 253-254쪽.

화부여단장이었던 장학봉은 지휘소에서 미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이 전개되는 장면을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광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sup>51)</sup> 인천상륙작전이 있기까지 북한 전쟁지휘부는 미군의 상륙작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 대응은 실질적이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안이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 있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김일성이 상륙작전에 대한 대비가 아닌 낙동강 축선에 계속 집중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김일성의 전쟁 지휘가 가능했던 점은 최고사령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전반적인 무력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김일성이 주도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전쟁을 지휘했을 뿐만 아니라 소련군사고문단이 38도선 이남으로 함께 내려가지 못한 상태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제한되면서 감독과 조언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나. 북한군의 인천상륙작전 저지 실패와 작전한계점 도달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시행하자 북한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분주했지만, 김일성을 비롯한 지도부는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상황 인식도 제대로 못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일성은 왜 인천상륙작전 저지에 실패했고, 작전한계점에 도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엔군의 상륙작전이 시작된 9월 15일 낮 김일성은 그날 내각 제26차 전원회의를 열고 전시 상황에 부합한 체신사업의 개선과 강화를 지시하고 있었으나, 그 회의 시의 발언 어디에도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그러한 위기 인식조차 드러나지 않

51)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서울: 경인문화사, 2006), 579-580쪽.

았다.<sup>52)</sup> 이는 김일성이 인천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상륙작전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저우언라이는 북한군에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 방안은 서울에 약 10만 명이 있다면 낙동강 전선에는 방어를 유지하면서 인근 부대를 집결시켜 서울과 인천 방어에 투입하여, 인천에 상륙한 적을 먼저 격퇴하고 이후 낙동강 축선에서 다시 공세로 전환하는 계획이었다. 다만 이 방책은 전력이 상륙부대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경우로 후방에 있는 예비대를 운용할 수 있을 때만 성공이 가능한 것이었다.

두 번째 방안은 낙동강 축선의 일부 구간에서 방어선을 축소하고, 주력 사단 중 일부를 인천-서울로 전환 배치하여 후방 예비부대와 결합하여 상륙군의 진격을 차단하는 한편, 낙동강 전선의 잔류 주력을 신속하게 철수시켜 좀 더 유리한 지형에 방어선을 재편성 및 강화하는 것이었다. 저우언라이는 9월 18일 소련대사인 로신(Nikolai Roshchin)을 통해서, 9월 초까지의 낙동강 전선 관찰 결과 북한에는 후자의 방안이 현실성이 크다고 전달했다.<sup>53)</sup> 소련의 외무장관 그로미코(Andrei Gromyko)도 저우언라이와 같은 의견임을 김일성에게 통지했고, 저우언라이와의 회담 요구를 중국에 있는 소련대사 로신에게 전달했다.<sup>54)</sup>

그러나 김일성은 9월 17일에 상륙군 규모에 대한 전모는 파악했으나 사태의 심각성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며, 낙동강으로부터 주력 사단들을 후퇴시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아직도 김일성은 계속해서 ‘부산 방향으로 최후 공세’의 가능성에 집착하고

52) 김일성, “전시조건에 맞게 체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50년 9월 15일,” 『김일성전집 12』, 299-307쪽.

53) “로신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1950년 9월 18일), 이 전문에 의해 그로미코가 9월 20일에 소련 또한 중측과 견해가 같다는 전보를 보냈다.

54) 선즈화, 앞의 책, 2024, 252-253쪽.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은 유엔군의 인천 상륙 이후 대응으로 민족보위상 최용건이 인천과 서울 지역 일대의 방어를 전담하는 서해방어사령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를 사령관으로 임명했다.<sup>55)</sup> 또한 김일성은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항전을 전개할 수 있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사단 편성을 구상했다. 김일성은 정치위원회 회의에서 전선사령관과 민족보위상이 주체가 되어 남한 지역 동원 인원으로 9개 사단을, 북한 지역 동원 인원으로 6개 사단을 편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후, 9월 30일까지 사단 창설 완료를 지시했다.<sup>56)</sup>

김일성은 사단 구성을 위해 인원만 있으면 되고, 장비는 소련이 지원해 준다는 안일한 방식의 부대편성을 구상했는데, 이는 6·25 전쟁 동안 남한에서 징집 인원을 포함해 많은 인원을 북한 군으로 복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일성이 낙동강 방어선 고수를 엄명할 때 북경과 모스크바에서는 김일성의 작전지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낙동강 전선의 주력 사단들을 서울로 전용하여 인천-서울 방어선을 강화하고 주력부대의 포위·소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스탈린은 1950년 9월 18일 김일성에게 낙동강 전선에서 4개 사단을 차출하여 수도권 방어를 보강하라고 소련군 총참모부와 소련군사고문단에게 지시를 내렸다.<sup>57)</sup>

55) 북한 공간사들은 일관되게 서해방어사령부를 창설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인천상륙에 대한 시기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을 김일성이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그러나 소련자료에서는 그 사령부 창설과 최용건을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 9월 17일이라 명시하고 있다. 소련군 조선전쟁전투일보(1950년 9월 17일자); Lototskii · Volkovskii, 앞의 책, 2000, 125쪽.

56) 김일성, “급변하는 군사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년 9월 17일,” 『김일성 전집 12』, 309쪽.

57) 스탈린의 이러한 지시는 1950년 9월 27일 슈티코프 대사에게 보낸 전문과, 같은 해 10월 1일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에게 발송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탈린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김책에게 내린 명령은 “현 전선을 유지하되,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병력을 수원으로 전환하라”는 모호한 지시였으며, 이에 따라 전쟁일지에 언급된 세 개 사단의 북상 결정은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 당시 전선사령관 김책은 전차의 대부분을 상실한 제105전차사단의 주력부대(약 20대의 전차를 보유)와 제9사단 예하 제87연대를 경인 지역으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하달했다.<sup>58)</sup>

김일성이 애매한 지시를 하자 이를 이행해야 하는 김책도 낙동강 축선에서의 철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작전 수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의 가용한 병력을 서울 지역으로 북상시킨 것이다. 김일성은 결심해야 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말을 듣기보다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낙동강 축선에 계속해서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렇다고 김일성은 그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애매하게 지시했으며,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한편,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감행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중이던 낙동강 축선의 전선사령부도 곧 작전한계점에 도달했다. 북한군은 9월 21일, 23일, 25일을 제외하고 9월 20일에서 29일까지 최고사령부와 낙동강 전선의 전선사령부, 군집단사령부 간의 통신 연락이 차단되었다.

김일성의 최고사령부는 서울 전선으로부터는 일정한 보고를 받았으나, 낙동강 전선을 지휘하던 김책의 전방지휘소(김천)와의 교

58)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5: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의 개입』(서울: 명성출판사, 1986), 102. 주영복이 회고록에 적은 김일성 명령은 “제1군단 예하 주력부대 일부를 신속히 서울·인천 지구에 보내고 잔여 주력부대는 현 지점을 사수하라!”는 내용이었다.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2권』(서울: 고려원, 1991), 59쪽.

신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했다. 다만 소련군은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함으로써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sup>59)</sup>

이때 북한군 사단들은 하부 지휘선부터 무너졌다. 김일성의 빨치산 시절 부하인 최용진이 지휘하던 제13사단에서는 사단장의 무리한 지휘에 대한 항명 사건이 발생했고, 이어 고급 군관들이 유엔군에게 투항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제2군집단사령관 무정은 권총을 들고 진지 사수를 명령했으나, 연대장들이 먼저 철수함으로써 방어선은 유지되지 못했다.<sup>60)</sup>

1950년 9월 20일 저우언라이는 평양에 있는 중국대사 예지량을 통해서 북한에 다음과 같은 전략적 권고를 전달했다. 그는 신편사단 편성이 장기적 대비책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속결전보다는 장기간의 지구전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쟁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력의 신속한 철수로 전력을 보전해 반격 전력을 구축하고, 반격 시에는 우세한 병력으로 적의 소규모 분전대를 선별적으로 제거하여 점차적인 전과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요컨대 그의 권고는 주력의 보호와 장기전 준비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sup>61)</sup>

9월 23일 김일성이 낙동강 방어선 전 부대 철수를 명령한 직후 전선사령부와의 무전 교신은 다시 단절되어, 평양에서는 25일의 일시적 복구를 제외하고 29일까지 교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김일성은 서울 함락이나 유엔군의 북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같은 날 평양 모란봉 지하극장의 설계를 논의하며 공사를 1951년 5월 1일까지 완공토록 한 것은 전선의 위기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59) 소련군 조선전쟁전투일보(1950년 9월 20-25일자).

60) 주영복, 앞의 책, 1991, 62쪽.

61) 『主恩來軍事文帝』第4券(北京: 人民出版社, 1998), pp. 56-57. 저우언라이가 제시한 전략 조언은 9월 21일 김일성에게 전달되었다.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sup>62)</sup>

북한군이 낙동강 축선에서 작전한계점에 도달한 것은 모든 면에서 예측된 결과였다. 맥아더 장군이 의도한 대로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서울을 관통해 내려가는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면서, 낙동강 축선에 있는 북한군은 배후가 불안해졌고, 아래에서는 강력한 공중폭격을 위시한 유엔군의 전투력 증강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김일성이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축선에 계속 집중하도록 전쟁을 지휘한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군은 인천상륙작전 저지 실패와 낙동강 축선에서 작전한계점에 도달하면서 다시 38도선 이북으로 패퇴하게 되었다.

## 4. 맺음말

본 논문은 6·25전쟁 발발 이후 김일성이 북한군의 남한 공세 시행을 지도하고 유엔군의 상륙작전을 대비하면서 왜 인천상륙작전 저지에 실패했는지를 북한군의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 즉, 김일성이 최고사령관이 되어 권력을 강화한 이후 어떻게 전쟁을 지휘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특히 6·25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북한군이 저지하지 못하면서 전장의 주도권이 북한군에서 유엔군으로 넘어가는 공세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김일성이 ‘전반적인 무력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는’ 절대권력을 갖춘

62) 김일성, “모란봉지하극장을 훌륭히 건설하자: 모란봉지하극장 설계도면을 보고 설계일군 및 평안남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50년 9월 23일,” 『김일성 전집 12』, 319-321쪽.

최고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휘하는 전시 군사지도·지휘체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초기 국면에서 김일성의 전쟁 지휘 실패와 예하 지휘관에 대한 감시·통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6·25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서울만 확보하면 남한 점령은 끝난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전쟁에 임했다. 그러나 효율적인 전시 지휘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서울 확보에 나섰고, 초기 승세를 잡은 것처럼 인식했다. 그러나 미군 개입에 따른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소련군사고문단은 전시 단일 지도체계의 필요성을 과거 구소련의 제2차 세계대전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했고, 김일성 또한 비효율적인 집단 지도체계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당의 집체적 정책 결정 체계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무력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휘하는’ 최고사령관 직책을 수행함으로써 군에 대한 유일적 지휘 권한을 강화한 채로 전쟁을 지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최고사령부 창설과 김일성의 최고사령관 임명은 미군 참전으로 야기된 전쟁 장기화의 가능성과 기존 북한군 지휘체계가 갖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고사령관은 전시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급박한 전황 변화 상황에서 당의 ‘집체적 결정체계’가 초래할 수 있는 판단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동시에 전략적 판단을 그르치면 치명적 결과가 대두될 위험 또한 내포한 이중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소련의 신임을 받으며 북한을 대표하는 김일성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김일성은 소련군사고문단이 38도선 이남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

태에서 공격기세를 높이며 초기 공세에는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상륙작전 저지에 실패하면서 초기 공세를 통해 확보한 성과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북한군의 군사지도·지휘체계 개편이 단기적으로 공세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김일성의 전략·전술적 판단 오류와 감시·통제 시스템이 없는 단일 지도체계의 취약성은 결국 전황 악화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특히 김일성이 북한군을 지휘하면서 야기한 인천상륙작전 저지 실패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짚어볼 수 있다.

먼저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이 상륙작전에 대비하라는 조언을 무시하고 상륙작전 대비에는 소홀한 채 신속한 조국 해방을 위한 낙동강 축선의 돌파에만 매진한 전략적 판단의 오류를 범했다.

다음으로 유엔군의 최초 상륙 성공 이후 스탈린이 낙동강 축선의 주요 병력을 서울 인근으로 올려 상륙군의 전과확대에 대응하라는 직접 지시를 내렸음에도, 김일성은 사안을 안일하게 판단했다. 그는 최용건을 서해방어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후방지역 방어를 전담케 한 이후 낙동강 축선의 일부 부대만 전환하여 저지 실패에 이르도록 한 전술적 판단의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전략·전술적 오류는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절대적인 권력 강화 이후 단일 지도체계의 오류를 지원하는 시스템 부재에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김일성의 잘못된 전쟁 지휘에 더해 예하 지휘관과 예하 부대를 통제하는 시스템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예하 부대는 낙동강 축선에서 명령 이전에 전선을 이탈하거나, 유엔군에게 투항하고, 그리고 지휘관들이 먼저 철수하는 등 무질서·무규율적인 모습을 보이며 김일성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에 반해 유엔군의 전투력이 계속 축적된 부분과 맞물려

작전한계점에 봉착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일성은 7~9월 공세 이후 인천상륙작전 저지 실패를 통해 조국 해방이라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김일성이 첫 번째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를 통해 절대권력을 가진 전시 최고사령관이 된 이후 6·25전쟁 초기 인천상륙작전 저지 실패와 작전한계점 도달 후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패퇴하게 만들면서 북한군 통제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김일성은 당-군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되면서 기존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 개편하여 두 번째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를 이루며 북한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제도화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일성이 6·25전쟁 초기 인천상륙작전 저지 실패 이후 38도선 이북으로 패퇴하면서 북한군에 대한 당적 통제의 제도화 필요에 따라 새로운 군 통제 체계의 변화를 통한 연속적인 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때 김일성은 패퇴 과정에서 무질서·무규율적인 모습을 보인 북한군에 대한 대내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이 개입하며 발생한 대외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연속적인 변화가 김일성의 단일 지도체계 확립을 위한 권력 강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로 확대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

### 1. 사료

- 김일성. “공화국남반부해방지역에서 당단체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하며 방어선을 구축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년 8월 4일.”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급변하는 군사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년 9월 17일.”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모란봉지하극장을 훌륭히 건설하자: 모란봉지하극장 설계도면을 보고 설계일군 및 평안남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50년 9월 23일.”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서울방송국을 장악하고 운영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에게 준 지시 1950년 6월 27일.”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전시조건에 맞게 체신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50년 9월 15일.”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조선전쟁에 가담하고 있는 일본 반동정부의 범죄행위를 폭로 규탄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년 8월 30일.”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 \_\_\_\_\_.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 내무성, 민족보위성 책임간부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도내무부 장협의회에서 한 연설 1950년 8월 29일.” 『김일성 전집 12』.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 \_\_\_\_\_.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972.
-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쟁승리를 위한 전략적 방침 제시.” 『조선전사 25』.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 『평양학원 및 보안간부학교 내 당조직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1946년 9월-1948년 3월』, 평양: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11: 사회주의 정치방식의 확립』,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사회과학원 편.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제9사단 전투명령: 낙동강도하계획 1950년 8월 26일 박효삼.” NARA RG 242, ATIS Document no. 200501.

“조선인민군대 내에 중대문화부중대장 설치에 관한 결정서.” RG242 SA2009II, Item#37.

“Resolution 82.”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473rd meeting, June 25, 1950;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12025?ln=en&v=pdf>.

“Resolution 83.”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474rd meeting, June 27, 1950;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12026?ln=en&v=pdf>.

『主恩來軍事文帝』 第4券. 北京: 人民出版社, 1998.

S. S. Lototskii,/ N. L. Volkovskii, eds., Voina v Koree 1950–1953(한국전쟁 1950–1953). Sankt–Peterburg: Poligon, 2000.

TsAVMTs GSh VS RF (Arkhib–TsAMO–A) Fond 16, Opis 3139, Delo 133 “Zhurnal boevykh v Koree s 28 i iunia 1950 g. po 31 dekvria 1951 g.”(소련군 조선전쟁전투일보, 1950년 6월 25일–1951년 12월 31일).

\_\_\_\_\_. (1950년 7월 24일자).

\_\_\_\_\_. (1950년 9월 17일자).

\_\_\_\_\_. (1950년 9월 20–25일자).

## 2. 단행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북한연구 자료집, 제2집』,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 고재홍, 『북한군 최고사령관의 군사지휘체계』,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5-낙동강 방어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 \_\_\_\_\_,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 \_\_\_\_\_, “간부배치 및 이동에 대한 규정: 로동당 중앙본부(1949).” 『북한관계 자료집-조선로동당자료 1권』,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82.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주요국의 국방제도』, 입법참고자료, 제227호, 서울: 국회도서관, 1983.
- 백학순, 『북한정치에서의 군대: 성격·위상·역할』, 성남: 세종연구소, 2011.
- 선즈화, 김동길·이강범 역, 『기밀문건 속 한국전쟁』, 서울: 피엔에이월드, 2024.
- 예프케니 바지노프·나팔리아 바지노바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 전쟁의 전말』, 서울: 열림, 1998.
- 와다 하루키 저, 남상구·조운수 역, 『한국전쟁 전사』, 초판 3쇄, 경기 파주: 청아출판사, 2024.
-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구데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이수원, 『북한의 군사국가 지도기관: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서울: 경진출판, 2022.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초판3쇄, 서울: 중심, 2004.
-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 『한국전쟁 4: 인천상륙작전』, 서울: 명성출판사, 1986.
- \_\_\_\_\_,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역, 『한국전쟁5: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의 개입』, 서울: 명성출판사, 1986.
- 장학봉 외, 『북조선을 만든 고려인 이야기』,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 현대사』, 서울: 선인, 2011.
-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2권, 서울: 고려원, 1991.

- 코로트코프 가브릴(Korotkov Gavril) 저, 어진주 옮김. 『스탈린과 김일성』 제 2권, 서울: 동아일보사, 1993.
- 페렌바크, T. R.(Fehrenbach, T. R.). *This Kind of War*. 최칠영·윤상용 옮김. 『이런 전쟁』.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9.
- 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정보일지 부록』. 춘천: 아시아 문화연구소, 1990.
- Acheson, Dean. *Present at the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Norton, 1969.
- Truman, Harry S. *Memoirs by Harry S. Truman, 2: years of trial and hope*. New York: Doubleday & Comapny, 1956.
- Zhang, Shu Gu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Kansas: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 和田春樹. 『朝鮮戦争』. 東京: 岩波書店, 1995.
- 萩原遼. 『北朝鮮の極秘文書: 1945年 8月-1951年 6月』(大阪: 夏の書房, 1996)

### 3. 논문

- 고명균. 「박헌영의 북한군 초대 총정치국장 임명 배경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 17권 2호, 2014.
- 고재홍.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전쟁지도체계 연구」, 『현대북한연구』. 8권 2호, 2005.
-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동엽. 「선군시대 북한의 군사지도·지휘체계: 당·국가·군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홍종석. “6·25전쟁기 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와 당적 통제의 제도화.”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 Paik, Haksoon. “North Korean State Formation, 1945-1950.” Ph. D. Dissertation in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Abstract〉

## Why Did Kim Il Sung Fail to Prevent the Inchon Landing Operation?

-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

Hong, Jong-seok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s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following Kim Il Sung's establishment of the Supreme Headquarters and assumption of the position of Supreme Commander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the Korean People's Army's (KPA) failure to prevent the United Nations' Incheon Landing Operation, culminating in the operational culmination of the KPA offensive along the Nakdong River lin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nstitutional status, and functions of North Korea's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 Building upon these studies, this research examines how changes in the command system influenced the conduct of military operations before and after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thereby providing a new operational perspective on North Korea's wartime command structure.

At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North Korea entered the conflict under a peacetime command system based on collective leadership. Recognizing the need for centralized

wartime command, Kim Il Sung established the Military Commission and subsequently, with the support of the Soviet Military Advisory Group, created the Supreme Headquarters and assumed the position of Supreme Commander. Although this transformation centralized command authority, the KPA failed to prevent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reached its operational culmination along the Nakdong River line, and ultimately retreated north of the 38th Parallel. These military setbacks exposed the limitations of the newly established command system and prompted the recognition of the need for a new military control system.

Key Words : Korean War; Incheon Landing Operation; Supreme Commander; Unitary Leadership System.

원고투고일 : 2026.07.01. 심사수정일 : 2026.08.24. 게재확정일 : 2026.09.09.